

light to shine in politics, even in Korea!

One real possibility might be: a Reformed Christian political party. This has precedents in Korean political history. And it offers the possibilities of channelling Christian energy and thought into the upbuilding of the nation for the good of all.

For we must realize that all political parties, whether they are in America, Holland, or Korea, must be based on some kind of ideological foundation. Now, either we are going to build on a Christian base or a non-Christian base. There is no third alternative! All of life, including political life, should be brought under the Lordship of Christ. Not capitalism, not socialism, but a self-conscious Christian philosophy of existence (including economics) must be at the basis of true Christian political activity.

We have mentioned education and politics. We could go on. For the richness of life, reflecting the original richness of God's creation and fullness of redemption which is in Jesus Christ, is the terrain of the Spirit, where He seeks to transform us into the image of Christ.¹⁴⁾ Too often in the past Korean Christians have imitated the West, rather than seeking to transform their own cultural materials for the glory of God. Music, painting, poetry, architecture, these too are areas which are in need of Biblical Reformation. Christ is Lord! He is the Alpha and Omega of all creation. His Kingdom rules over all. He calls us to a life of devotion, in His service, a life of Reformation, which is never satisfied or complacent, but which restlessly seeks to bring the light of the Gospel to all the areas of life. That is why we are semper reformandi (always Reforming), always seeking to do God's will to the utmost of our ability with the whole of our being. For not our own happiness or fulfillment, but God's glory is the true aim of all we do or think.

14) Introducing Dooyeweerd's comprehensive philosophy, see L. Kalsbeek,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Toronto: Wedge, 1975) (Korean trans. 1981); more consistently Calvinistic is: *Foundations of Christian Scholarship: Essays in the Van Til Perspective*, ed. G. North (Vallecito, Ca.: Ross House, 1976). See further: H.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3 Vols. (n. p.: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9); *The Idea of a Christian Philosophy: Essays in Honor of D. H. Th. Vollenhoven* (Toronto: Wedge, 1973).

病든 者를 爲한 牧會

姜 勇 元
(專講 · 基督教教育)

病든 者에 對한 關心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일은 모든 基督信者의 의무이며 또 특권이다. 마태복음 25:36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教會의 長老들이 이 일을 公的으로 逐行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약5:13-15). 특히 牧會者는 가르치는 長老로서 필요할 때마다 羊들을 도와줄 責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3년의 公事役 기간중에 하신 중요한 일은 傳道와 가르침과 病든 者에 대한 關心을 가지셨는지를 고치심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얼마나 病든 者에 대해 關心을 가지셨는지를 福音書의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구약의 先知者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우리의 軟弱한 것을 親히 擔當하시고 우리의 病을 짊어 지셨다(사53:4). 오늘날 牧會者의 임무중에서 이 病든 者에 對한 배려와 關心에 對한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듯 하다. 筆者는 이 작은 論考에서 이 問題의 重要性을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病床心理, 病의 本質, 그리고 환자 牧會의 根本精神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I. 病者牧會의 重要性

먼저 病者牧會의 重要性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人間의 고뇌 問題를 解決하는 길은 宗教的인 世界가 아니면 不可能하다는 確信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사람의 精神的인 요인이 身體的인 病을 惡化시키며, 장기화 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셋째로, 病든 者는 他人의 도움이 必要한 상태이다. 그

들은 自立心을 잃고, 無力상태에 있기 쉬우며, 그들은 고독하다. 그러기에 牧會者는 적절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病院은 身體的인 아픔만을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 精神的인 要求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病院에 入院했을 때 對話가 비교적 용이하고, 精神的인 도움을 받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도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關心을 가지셨다. 이와 같이 患者를 위한 牧會는 牧師에게 있어서 어느것 보다도 중요한 宣敎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牧師들은 병자 訪問을 귀찮은 일로 본다. 그것은 힘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할 不安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이 靈的인 위기라는 事實을 주시하는 牧師라면 자기 앞에 놓여진 봉사와 전도의 효과적인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Paul Johns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醫學이 專門화된 시대에, 아픈 자를 의사나 간호원에게만 맡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일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하지만, 질병의 危機는 박테리아와의 싸움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그것은 언제나 靈的인 危機인 것이다. 역경속에서의 인내, 절망과 싸우는 희망, 사느냐 혹은 죽느냐하는 意志의 靈的인 危機인 것이다. 이런 情緒的인 태도는 그 病者가 빨리 회복하느냐 혹은 계속 질병으로 고생하느냐를 정해 주는 重要的인 要因이 된다. 이러한 중대한 靈的인 요구에 직면하여, 牧師는 병든 자의 침상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 病床心理

Wayne Oates는 다음과 같이 病床에 누워 있는 사람을 묘사한다.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기의 獨自性을 상실하고 비교적 허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심히 충격을 받으며 허탈감과 죽음에 관한 생각으로 失望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生命을 떠맡고 있다고 할 의사들의 意見과 處方에 신경을 곤두세워 당황하고 있다. 병자는 질병으로 인해 다른 것에서 고립해 나와 自己中心의 生涯에 關心을 집중한다. 그는 쓸쓸한 가운데서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의 神秘性을 좀 설명해 주었으면 하고 갈구한다. 병자는 이런 문제점을 건설적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그의 질병은 人生的인 고행길로 받아들여야 하거나 이런 문제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질병이란 하나의 危機라고 말할 수 있다. 갑자기 다가온 고통과 不安定은 생의 조화를 깨뜨려 놓고 생의 안락과 자유를 뒤흔들 뿐 아니라, 그것은 생의 계획을 패배시키며 생의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牧師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환자가 病床에 갇혔을 때 느끼고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일이다.

슈메이커(Shoemaker)는 병자의 共通的인 정서 상태에 대해 두려움, 고독, 지루함, 분개심, 자기 연민 등을 들고 있다.

또, Paul Johnson은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는 그의 고통이 다른 모든 關心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아픔의 고통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다른 모든 흥미는 意識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된다. 고통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소리에 귀머거리가 되고 다른 자극에 반응할 수 없게 된다. 생의 모든 것이 질병의 최면술이라는 망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런 고통의 진통에 갇힌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된다. 그는 계속 엄습하는 고뇌의 파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의 外的인 흥미는 사라지고, 그의 外向性은 멀어져 보이게 된다. 즉 社會的인 距離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사막에 추방된 자처럼 그가 이전에 참여했던 社會的인 價値들을 기억은 하지만 즐길 수는 없다. 그는 옥에 갇힌 자처럼 거부당한 느낌, 자유의 땅에서 찢리워진 느낌, 그리고 쉽게는 다시 거기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는다. 이를 詩篇 記者의 외침과 흡사하다고 할까?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呻吟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潛潛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시22:1-6) 셋째로, 병원의 病者들은 그의 신체적인 아픔보다는 오히려 그의 정신적 고통으로 더 고통을 받는다. 그의 정서적 상태는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과거와 對面하기를 꺼려하는 미래라는 고통스러운 아픔의 틈바구니에 매달려 있는 듯한 불안과 불안정이다. 그는 앞을 내다보며 단지 매서운 불확실성만을 볼 뿐이다. 넷째로, 병자가 느끼게 되는 현상은 의존적인 존재로 퇴행하는 것이다.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이 弱해져서 더 強하고, 더 능동적인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 다섯째는, 자기 고통에 대한 抵抗感이다. 왜 나에게 이런 不幸이 다가 왔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는가. 만약 내가 無罪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有罪하다면 이 벌이 지나치다는 것 등이다. 여섯째는 그가 누워 있는 병상은 그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자기 자신의 실수와 죄의 결과로 그가 겪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행한 일들은 내가 해서는 안되는 일은 아니었는가?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심한 敵對感은 이제 그가 그 자신의 몰락의 원인이라는 罪責感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만약 그가 無罪하다는 환상에 계속 빠져 있게 될 때 거부된다. 물론 사람의 情緒的인 問題를 간단한 카테고리로 나누기는 어렵겠으나 이상과 같은 Johnson의 정리는 대단히 요약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示唆을 준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病床의 心理에 對한 몇가지 착안점을 언급한다면 첫째는, 환자의 疎外感을 들수 있다. 환자는 집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의 사건과는 無關하고 더 이상 속해 있지도 않다고 느낀다. 문자 그대로 환자의 世界는 病실과 침대 의 크기로 축소되고 만다. 그가 차지했던 자리는 다른 이가 다 차지한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가 없어도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환자는 점점 이 사실을 銳敏하게 느끼게 된다. 둘째는, 現在의 중요성이다. 환자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現在로 限定되고 現在만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다. 未來에 대해 그는 입맛이 쓰다. 왜냐하면 환자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하고 괴로와해야 하는가 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환자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완전히 후퇴해 버린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미래를 계획할 때 과거를 바탕으로 삼지만 환자는 현재만을 意識하고 산다. 셋째는, 正常的인 삶의 中斷에서 오는 不安이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정상적인 삶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전혀 不安으로 채워진 삶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환자는 병상에 누워있는 삶이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 에게 주어진 이런 삶에 對抗의 이 되기도 하고, 때로 좌절되고 당황하게 되기도 한다. 정상적인 삶은 지나갔고 앞으로 을 예측할 수 없는 삶에 對해 不安해 하게 된다. 넷째로, 사소한 일에 대한 關心이다. 밖의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환자는 적은 것들에 대해 대단히 銳敏해진다.

Ⅲ. 病의 치료와 罪의 용서의 문제

성경은 병의 치료와 죄의 용서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모든 病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결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은 病과 罪의 關係성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 는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먼저하심으로 죄와 病과의 關係의 可能性을 보이셨다. 또한 예수님은 38년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일이 있는 후 그를 만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罪의 형벌로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욥의 경우가 그러했고(욥1:6-9),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다(고후9:2-3).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일반적인 제자들의 견해와는 달랐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9:3) 또 약5:15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처를 일으

키시리라 혹시 (if)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했다. 여기서 가 정법이 사용된 것은 병든 자가 다 범죄자라는 뜻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의 代價로 병을 얻은 경우를 설명하기도 한다. 다윗이 인구 조사한 잘못으로 백성이 은역으로 화를 당한 일(삼하24:13-14), 모세를 원망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일(민12:10),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 거역한 웃시아 왕의 문둥병(대하26:16-21), 야고보를 죽이고 꺾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교만한 헤롯왕의 이야기(행12:23) 등은 범죄의 대가로 받은 징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과 죄와의 關係에서 언제나 그 관련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Jay Adams 는 病의 문제를 항상 “가능성으로서의 罪”를 意識하는 계기로 삼으며, 權면적으로 대결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본래 罪人이며, 또한 그의 삶이 罪의 結果로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과 항상 關係되어 存在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육체의 질병의 치료보다 사람을 全人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일에 더 큰 關心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병이 드는 순간은 내가 얼마나 허약하게 살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存在이며, 또한 그의 도우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든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병이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病者牧會의 中心原理

病者牧會의 中心 原理는 무엇보다도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直面사키는 일이라 하겠다.

트루나이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과업은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證言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눈앞에 서 계시야 하고 우리의 宣布를 통하여 牧會를 필요로 하고 있는 자의 눈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困境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과 關係를 맺으신 하나님의 臨在 외에 다른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資源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떤 형편으로든 病과 죽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存在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몰래 앓고 있든지, 또는 아주 分明하게 앓고 있든지 역시 앓고 있는 자들이다. 비록 우리가 아직도 우리 연령의 적응력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病과 죽음 앞에서 아

적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아마도 이미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熟考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트루나이젠은 계속해서 말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에 대하여 유일한 存在로서 마주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 즉 그 자신이 끝없이 고난 당하는 자로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苦難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자들과의 깊은 연대성 안에서 취하신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 안에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로서 홀로 내버려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運命과 더불어 홀로 내버려 있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이 現存에 관여하셨고 우리의 이 現存을 떠맡으신 그 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무슨 이름을 그 병에 붙이든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지 못하는 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이것이야말로 병든 자의 世界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現實의인 臨在라 할 수 있겠다.

이제 몇가지로 그리스도를 直面시키는 몇가지 원리를 정리하여 보자.

첫째는, 무엇보다도 十字架를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가 병과 죽음의 勢力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生命을 내어 주셨고, 이로 인해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牧師는 病者와 죽어가는 者의 病床에서 이것을 궁극적인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 주어야 한다. 牧師는 단순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병과 거기 연관된 問題를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 그들을 돕고, 성경적인 方法과 手段으로 격려하는 일이다.

둘째는, 牧會者 자신의 確信이다. 牧會者 역시 죄와 죽음의 억압아래 살고 있는 人間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資源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確信있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병자를 찾는 牧會者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완전한 確信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확고히 매달려서 그 은혜를 밝고 따뜻하게 하는 빛처럼 우리에게 비추이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 가신다는 確認이 牧會者의 전체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슬픈 표정도 지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아이로의 딸의 병실에서 우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셨다(마9:23이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병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意味할 수도 있다. 분명히 우리는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로서 行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병의 짐을 우리의 슬픈 표정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는, 들어주는 事役의 감당이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최선의 방법이다. 병석에 누운 환자를 방문할 때, 그 환자와 보호자가 잘못을 고백하거나 희망과 공포와 걱정을 이야기 할때, 牧會者는 그것을 조용히 잘 들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적개심과 열등감과 우울과 불만과 고통을 퍼부을 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심정을 누구에게 토로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경청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괴로운 고백을 진실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우선 듣는 중에서 그 문제의 전모를 전망할 수 있으며, 말하는 사람 자신도 진심으로 자기 문제를 討論하는데 몰입함으로써 答답하고 고통스러운 問題의 洞察력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牧會者의 들어주는 자세는 "우리과 함께 거하시" 成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세이다. 빌립보서4:5에서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면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말하였다. 牧會者는 주님의 이 가까이 오심에 마음을 모으고, 이를 遂行해야 한다. 牧會者는 사랑의 열정의외에는 다른 아무런 열정도 갖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牧會者는 언제나 全人으로서 그에게 接近해야 한다. 牧會者의 주된 關心은 병든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全體로서의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最近의 研究의 결과는 영혼과 육체, 인간의 外的 本性和 內的本性 사이를 서로 완전히 독립된 部分領域으로 분리할 수 없음을 보인다. 肉體的인 것은 靈的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고, 靈的인 것은 肉體的인 것 안에서 表現된다. 그래서 最近에는 정신치료학적(Psychosomatic) 관점에서 병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의 의사는 인간의 병을 치료할 뿐 아니라, 병든 인간, 병속에 있는 인간을 치료한다. 특히 牧會者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치료보다 더 큰 일, 즉 사람을 온전히 고치시려 하셨다는 사실(요5:14)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트루나이젠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病床에서 비록 그들이 건강해지더라도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關心에 두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宣布者, 確信있는 위로자로서의 牧會者는 병든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直面하게 하는 일을 遂行할 수 있을 것이다.